

大學 言論의 進路

李 光 宰

(慶熙大 新聞放送學科)

1. 問題의 提起

요즘 우리 사회는 과거의 權威主義的 傳統社會에서 自律과 自治가 존중되는 自由·民主社會로 변모하는 大轉換期에 처해 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캠퍼스에는 自由·民主化의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교내적으로는 그동안 閉鎖적이었던 學事行政이 開放적으로 바뀌고, 권위주의적이었던 교수·학생들의 意識構造가 自由·民主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교외적으로는 그동안 官 주도적으로 운영되었던 大學 運營이 서서히 自律·自治運營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轉換時代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過渡期的인 혼란과 不均衡 내지는 不調和的인 현상의 출현이다. 지금 대학은 민주화 과정의 여러 면에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大學 言論으로서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樣相의 언론 활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 언론이 一方的의 偏向性을 띠고 있다는 批判을 가하고도 있다.

대학 언론도 일반 사회 언론과 마찬가지로 그 機能이나 役割은 대상 영역에 차이가 있을 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일반 사회 언론이 不信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어느 면에서 보면 대학 언론의 영향력은 스튜던트 파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언론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

오늘의 우리 대학들은 大學 發展을 위한 콘센서스를 그 어느 때보다도 결실히 必要로 하고 있다. 이러한 콘센서스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大學 言論의 바른 指標는 무엇인가?

2. 大學 言論의 重要性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학(교) 103 개, 대학원 209 개, 교육대학 11 개, 전문대학 119 개, 각종 학교(대학) 26 개교 등 468 개교에 학생 1 백 36 만 3천 명, 교원 3만 6천 2백 12명, 사무 직원 2만 5천 8백 46명 등 1 백 42만 5천 58명이 대학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밖에도 기능공, 용원,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한 同門들까지 합하면 大學 人口는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많은 대학 인구를 대상으로 존재하는 대학 신문, 대학 방송, 잡지, 팜플렛, 大字報, 기타 刊行物 등 소위 大學 言論이 왜 중요한가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自明한 일이 되겠다. 약 4천 1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1 백 50만 명의 엘리트층 대상으로 하는 大學 言論의 영향력은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각 대학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87 개의 大學 新聞과 공식 집계

〈표 1〉 대학 및 대학 인구 통계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사무 직원 수*
대	학(교)	103	990,000	28,642	20,364
대	학 원	209	70,000	—	538
교	육 대 학	11	21,000	653	471
전	문 대 학	119	260,000	6,458	4,013
각	종 학 교(대학)	26	22,000	459	460
계		468	1,363,000	36,212	25,846
				총 계	1,425,058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7.

東亞年鑑, 1988, 再引用.

* 문교통계연보, 1986.

〈표 2〉 大學 新聞 현황

刊	別	신 문 數
주	간	49
월	간	83
겨	원 간	27
계	간	28
計		187

자료: 한국신문방송연감, 1988.

어려운 각종 신문, 예를 들면 單科大學 단위의 신문, 각종 잡지, 팸플릿, 뉴스레터 등 여러 유형의 인쇄 매체가 있다. 또 有線을 이용한다 라디오 방송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여러 매체 중 특히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大學 新聞과 大學 放送을 중심으로 大學 言論의 理想과 現實의 여러 問題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大學 言論의 當面課題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사회가 건전하게 存立 하려면 우리 인간의 몸에 적당한 양의 피가 흘러야만 건강하듯이 적당한 양의 情報가 자유스럽게 유통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유언비어와 地下媒體 등이 등장하여 社會秩序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大學은 量과 質의 인 면에서 큰 발전을 거듭했지만 외부의 심한 統制로 인하여 자유스런 학문 연구 분위기를 크게 저해당하였으며, 또한 자율 통제 기능도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學問活動과 大學生活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大學 言論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굴레의 멍에가 벗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大學 言論이 當面하고 있는 課題는 무엇인가?

첫째, 대학 신문이나 방송 제작에 있어서 學生들의 自律性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대학이 진리 탐구, 교육, 사회 봉사의 제 기능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自由와 自律(自治)이 보장되어야 한다. 젊은 학생들에게 창조욕과 모험심 그리고 진취의 기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대학의 자유와 자치는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 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언론 활동의 自由와 自治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피교육자라는 면에서 완전한 自由와 自治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 制限의 정도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항상 논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대학 언론 운영에 필요한 경비(재정)를 지금처럼 학교 당국이 교비에서 지급해 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조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비를 학교가 보장해 준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편집·편성 활동만의 자치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경비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은 自由와 責任을 동시에 부여하는 폭 넓은 自治活動을 허용하는 것이다. 학업이 본업인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심사숙

고할 일이다.

세계, 대학 신문과 대학 방송 이외의 大學 言論의 폭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앞으로 대학 언론 매체는 自由化·民主化의 영향에 의해서 뿐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더욱 다양하게 등장·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현대는 多元化社會이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의견이 자유로이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방식, 즉 지도 교수가 있으나 그 지도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언론 활동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逆機能과 責任 問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大學 言論의 主體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수, 학생, 학교 당국, 기성 사회인 등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대학 언론의 向方이 달라진다. 4년 또는 6년 동안 수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대학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교 당국 三者는 모두가 각기 가는 길이 다르다. 이 차이점을 각자는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大學 言論의 進路도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4. 大學 言論의 類型

대학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곳이다. 대중 정치 사회와 대중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특수한 大學이 대중의 大學으로 전환되어 오늘의 大學은 質·量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이 量的으로 크게 팽창되었기 때문에 大學의 文化와 大學의 精神이 크게 低俗化되었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에는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창출해내는 大學 文化는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大學 文化의 創造와 大學 社會의 여러 樣相을 반영하는 大學 言論의 理想像은 어떤 것인가?

매체를 누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完全獨立型이다. 신문이나 방송 등의 제작과 재정 문제 등 일체의 것을 학생들 손에 맡

기는 것이다. 열기는 왕성하나 경험이 부족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은 있으나 시행착오가 많고, 학업과 언론 매체 제작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뒤따르고, 학생 신분으로 재정 문제까지 처리하기에는 力不足인 여러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언론 활동을 영위한다는 면에서 보면 완전한 自治活動이 되는 것이다. 이런 類型의 言論은 이름만 대학 언론이지 일반 사회 언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둘째, 教育指導型이다. 매체 제작의 주체는 학생들이지만 교수의 지도하에 언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專任記者制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編輯權으로서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가 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간섭 내지는 검열이라고 항변한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에 봉착해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도 교수가 있고 발행인이 총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어떤 경우에는 정리되지 않은 학생들의 소리가 원색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교육 지도형에는 매체 제작에만 학생들을 참여·교육시키는 형과 경영면에도 학생들을 참여·교육시키는 형의 두 가지가 있다. 어떤 형을 선택하는가는 그 대학의 형편, 즉 교육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유형의 언론은 교수들의 권위주의적 내지는 가부장적 지도 태도와 학생들의 자유주의적 내지는 급진적 개혁 사고로 인해 자주 충돌을 빚곤 한다.

세계, 既成社會人 運營型이다. 일반 기성 사회인, 특히 그 대학의 졸업자가 그 대학을 대상으로 제작해내는 매체로서 일반 언론 매체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료로 충당한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다.

네째, 大學弘報機關型이다.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대학의 관리 내지는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매체이다. 제작의 주체는 학생들이고, 교수와 직원들이 학생들을 적극 지도하지만 학교의 홍보

내지는 선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많은 대학들이 건설 초창기에는 신문과 방송을 이런 목적에 많이 활용하였다. 현대는 마스크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매체도 필요하다.

5. 大學 言論의 特性

사회의 민주화·자유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대학 언론의 바른 진로를 설정하려면 먼저 大學 言論의 特性이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특성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언론에는 미숙함이 常存해 있다. 대학 언론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근무 기간이 보통은 1~2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퇴사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대학 언론에서는 항상 미숙면공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성숙된 모습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사람도 그렇고 제품 자체도 그렇다.

둘째, 풍부한 집필진과 고급 두뇌군을 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사회 언론과는 달리 수준 높은 메시지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공존하고 있다.

셋째, 매체 제작의 주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젊음과 진보, 창조, 진취, 탐험 등의 도전적 메시지가 많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캠퍼스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캠퍼스 밖의 정치·경제·사회·노동·외교 문제까지 폭 넓게 취급하고 있다.

넷째, 대학 언론의 수용자는 전공 분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계층이 다양하다. 따라서 공통 본모를 찾기도 어렵고 매체 제작시 관심의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다섯째, 재정의 어려움도 없고(이론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배포의 어려움도 없다. 따라서 경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작하느냐 하는 제작 방법론이 항상 문제로 제기된다.

여섯째, 대학에는 입학, 졸업, 시험, 방학 등 반복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매체도 자연스럽게 이런 행사를 중시하게 되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제작이 상당히 용이하다. 어떤 사상이나 문제 의식의 제기보다 年例化된 행사와 공고를 비중있게 다루는 경향이 많다.

6. 新 時代 大學 言論의 方向

요즈음의 시대 변화상, 특히 大學街의 變化相은 너무나도 급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총장실 짐거를 비롯한 시설 및 기물의 파괴·파손, 교수에 대한 구타·석발, 학사 일정의 강제 중단 등 형언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대학 언론도 혼조를 거듭하고 있는데 몇 가지 改善點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言路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대학 신문과 대학 방송뿐 아니라 단대 차원의 신문, 잡지, 팜플렛 등 각종 매체가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여러 계층 학생들의 소리가 골고루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화·민주화는 여러 의견을 표출하게 하여 토론시키고 그리고 결론을 유도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학교 당국의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 학생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 교수와 직원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가 별도로 등장해도 좋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과 경영이 원만하게 뒷받침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둘째, 비록 대학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학생이라도 학생은 어디까지나 피교육자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화·자유화 시대라 해도 학생들의 활동 영역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매체 제작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이 교수들의 지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포기과 다름 없는 일이다.

또한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한계가 무엇인가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셋째, 외설, 명예 훼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발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창조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훈련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네째, 오늘의 대학은 극심한 不信과 無秩序 그리고 無價値의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스승과 제자가 가는 길이 분명히 다른데 제자가 스승의 길로 들어서서는 비정상이 정상을 구축하는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대학 언론은 이러한 대학의 병폐를 바로 잡아 주고 지성인들을 학문과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하여 眞理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대학 언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大學人을 하나로 묶는 統合의 機能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다섯째, 大學 言論은 大學 言論답게 제작되어야 한다. 외부의 영향, 특히 정치적 변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캠퍼스 안의 문제보다는 캠퍼스 밖의 문제를 너무 과중하게 취급함으로써 대학 언론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 大學人의 문제를 大學人의 시각에서 취급하여 大學人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大學 言論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